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파월 발언에 흔들린 증시, 전반적 하락세

Key Takeaways

- 주요 지수 대부분 하락: 나스닥 0.6% 하락, S&P500 0.6% 하락, 다우 0.5% 하락, 러셀2000 1.5% 하락
- 파월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을 것"
- 신규 실업수당 청구, 전 주보다 4,000명 감소

Summary

미 증시는 하락 마감함. 이날 S&P500 지수는 0.6% 하락한 5,949.17을 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6% 하락한 19,109.29로 마감함.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5% 하락한 43,750.86을 기록했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1.5% 하락하며 2,334.83에 거래됨. 이날 연방준비제도(Fed) 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면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를 다소 완화시킴. 파월 의장은 델러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 경제의 강한 회복세를 강조하며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함. 경제 지표로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1월 첫 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1만 7천 명으로 집계되며 전 주 대비 4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6개월 만에 최저 수치로, 여전히 강한 노동시장을 반영함. 10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대비 2.3% 상승, 전월 대비 0.2% 증가하며 시장 예상을 상회함. 이러한 가운데 디즈니는 예상치를 웃돈 호실적으로 주가가 7% 이상 상승했으며, 테슬라는 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함. 주요 지수들의 전반적인 하락세 속에서, 투자자들은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와 연준의 의사결정에 주목함. (다우 -0.47%, 나스닥 -0.63%, S&P500 -0.60%, 러셀2000 -1.46%)

특징종목

디즈니(+6.2%)는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 발표와 스트리밍 서비스 수익 개선 덕분에 주가가 상승함. 파이프 샌들러를 비롯한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투자자 신뢰를 더욱 높였음. 테프스트리(+13%)는 카프리카와의 인수 합병 계약 해제로 주가가 급등함. 규제 문제로 인한 합병 취소가 오히려 기업 가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음. 애플(+1.4%)은 새로운 AI 기능을 포함한 iOS 18.2 베타 버전 출시로 혁신 기대감이 상승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음. ASML(+2.9%)은 AI 수요 증가에 힘입어 2030년까지 긍정적 시장 전망을 유지하며 장기 성장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음. 반면, 슈퍼마이크로(-11%)는 분기 보고서 지연과 나스닥 상장폐지 위험이 부각되며 불안감이 가중되어 주가가 급락함. 테슬라(-5.8%)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전기차 산업 우려로 인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함. 시장 변동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음. 시스코(-2.1%)는 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실망감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짐. 이러한 상승 및 하락 요인들은 각 기업의 주가 변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음.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20분, KST 기준

오늘 채권 시장에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456으로, 0.012포인트 하락했음. 이는 최근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든 결과로 평가됨.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DXY)가 106.90을 기록, 0.39% 상승했음. 이는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늦춤 가능성과 미 경제 회복 기대감이 달러 상승을 견인했음. 상품 시장에서는 WTI 원유가격이 하루 동안 0.3% 상승한 68.63달러를 기록했음. 이는 에너지 부문의 견조한 수요와 재고 감소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반면, 금은 0.14% 하락한 2567.21달러에 거래되었으며, 전반적인 달러 강세가 금 가격에 부정적으로 작용함. 주요 금속과 농산물 시장에서는 은이 0.80% 상승한 반면, 대두(-1.91%)와 밀(-2.26%)은 하락하였음. 이러한 움직임은 인플레이션 압력 및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이 안전 자산과 위험자산 간 균형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Market Snapshot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S&P500 (SPY)	-0.6	배당성장 (SCHD)	-0.4
S&P500 동일가중 (RSP)	-0.8	미 국채 (AGG)	-0.0
나스닥100 (QQQ)	-0.7	미 장기 국채3X (TMF)	+1.6
다우 (DIA)	-0.5	매그니피센트 7 (MAGS)	-1.2
대형성장 (MGK)	-0.5	인공지능 (AIQ)	-1.0
소형주 (IWM)	-1.3	메타버스 (METV)	-0.1
인도 (INDA)	+0.2	클라우드 (CLOU)	+1.5
중국 (FXI)	-1.1	2차 전지 (LIT)	+0.5
반도체 (SOXX)	-0.1	로봇 (BOTZ)	+0.3
부동산/리츠 (VNQ)	-0.9	방위산업 (SHLD)	-3.8
헬스케어 (XLV)	-1.6	스마트 그리드 (GRID)	-0.6
항공 (JETS)	+0.7	미국 인프라 (PAVE)	-1.5
소프트웨어 (IGV)	-1.3	친환경 (ICLN)	+2.0
바이오테크 (XBI)	-3.0	우라늄 (URA)	+0.4

US Sector Index				
S&P 500	증가	D-1(%)	D-5(%)	D-20(%)
에너지	724.5	+0.1	+1.4	+1.6
IT	4,592.3	+0.0	-1.0	+0.9
필수소비재	868.1	-0.2	+1.1	-1.3
금융	824.4	-0.3	+1.7	+6.0
유틸리티	395.7	-0.4	+0.3	-2.9
커뮤니케이션	331.1	-0.7	-0.9	+4.7
소재	578.3	-0.7	-3.5	-5.0
부동산	268.8	-0.9	-0.7	-2.0
경기소비재	1,745.5	-1.5	+1.5	+10.5
헬스케어	1,683.5	-1.5	-3.0	-6.7
산업재	1,181.6	-1.7	-0.6	+0.4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및 지수	증가	D-1(%)	D-5(%)
WTI	68.7	+0.4	-5.1	달러인덱스	106.93	+0.4	+2.3
Brent	72.6	+0.3	-4.2	유로/달러	1.0523	-0.4	-2.6
미국 천연가스	2.8	-7.2	+2.8	달러/엔	156.27	+0.5	+2.2
석탄	123.8	+2.2	+4.1	달러/역외위안	7.2539	+0.1	+1.5
금	2,572.9	-0.6	-5.0	달러/원(NDF)	1,406.8	+0.1	+1.9
은	30.6	-0.4	-6.4	비트코인	87,951	-0.8	+15.0
구리	9,024.0	-0.3	-6.6	이더리움	3,111	-1.4	+1.1
알루미늄	2,933.0	-1.6	-3.9	나스닥 크립토	4,399	-1.9	+14.9
밀	548.3	-1.2	-6.7	CRB 상품 (11/13)	335.08	+0.3	-0.3
대두	987.5	-1.9	-3.7	LME 금속 (11/13)	3,968	-0.9	-5.9
소고기	185.1	-0.5	-1.2	발틱 건화물 운임	1,630	+3.8	+13.2
돼지고기	83.8	-2.8	-2.0	컨테이너 운임(주간)	3,440	+91	-2,110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주요 스프레드	증가(%)	D-1(bp)	D-5(bp)
미국	4.45	-0.4	+12.2	미 국채 10-2년	8.8	-7.4	-3.7
한국	3.08	+1.3	-1.9	미-한 국채 10년	137.2	-1.7	+10.5
일본	1.06	+1.4	+5.4	미-일 국채 10년	338.3	-1.8	+8.8
독일	2.34	-4.9	-10.4	프-독 국채 10년	73.9	-0.013	-0.013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 주: 컨테이너 운임(주간)은 1M, 3M 대비 등락폭 기준, 괄호 안은 기준 날짜.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금융투자분석사가 공표한 자료입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